

진흥회 활동

'97 전자정보산업 경기전망 세미나 개최



본회에서는 지난 12월 6일 르네상스호텔에서 전자업계 대표 및 경영기획담당 임직원, 관계기관 인사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97년도 전자산업 경기세미나'를 개최했다.

최근의 우리 전자산업은 세계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속에서도 고비용 저생산성 등으로 경쟁력이 급격히 약화되고 있으며, WTO체제하에서 자본, 유통시장의 개방과 선진국의 통상압력 가중, 국제환율변동 심화, 우리나라의 OECD회원가입 등 대내외적인 경영여건의 변화로 우리 기업들이 내년도 경영계획수립에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사료됨에 따라 본회에서는 우리 전자업계의 '97년도 경영계획수립에 유용한 정보자료를 제공키 위해 전자산업의 60대 주종품목의 수요예측조사 결과와 관련 제조업체 시장 전문가의 분야별 전망을 중심으로 「'97전자정보산업 경기전망세미나」를 개최하였다.

각 분야별 주제발표는 다음과 같다

- 전자산업의 최근 동향과 '97년 전망
(본회 박재인 상무)
- '97년 가전산업 전망
(LG전자 최만복 이사)
- '97년 컴퓨터산업 전망
(삼보컴퓨터 이홍순 전무)
- '97년 통신산업 전망
(대우통신 김수영 이사)
- '97년 반도체산업 전망
(삼성전자 정의용 이사)
- '97년 전자부품산업 전망
(LG전자부품 이상욱 상무)

'96 동경 한국부품 산업종합 전시회



지난 11월 6일~8일 3일간 동경 MIPRO 국제전시장에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주최로 80여개사가

참여한 가운데 '96 동경 한국부품 산업종합 전시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개막식 행사에는 통상산업부 차관보와 본회 이상원 부회장이 테이프 커팅을 하였으며, 개최규모는 2,500m²로 83개 업체가 참여하였으며, 업종별로는 전자·기계 업종은 참가신청이 활발한 편인데 비해 수송, 금속, 전기업종의 참가신청은 저조한 편이었다.

본 부품산업전은 매년 1회 실시 하는것으로 한일 양국의 무역확대와 산업교류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개최되고 있는 바, 한일 기업간에 활발한 상담이 전개되어 커다란 성과를 얻어 한일간 부품 무역이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산업부품·중간재·신소재 분야에서 고품질 고부가가치화를 추구하는 한국의 유망기업이 출전하고 있다.

본격적인 부품·재료의 해외조달시대를 맞이하여 일본기업으로서도 본 부품산업전이 고품질·신뢰성 있는 한국부품을 조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할 수 있다.

할인특매고시 개정안 공청회

지난 11월 2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할인특매고시 개정안 공청회가 개최되었다.

본 공청회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경쟁국장의 제안설명으로 연구기관(한국유통연구소 이병열 소장), 법조계(안재홍 변호사), 언론계(문화일보 유태현 차장), 재계(본회 김태곤 이사, 현대백화점 박중삼 상무, 한국시장협회 유영수 전무), 소비자단체(소비자보호원 최충대 부장)등의 열띤 토론이 있었다.

본회에서는 할인특매 실시간제도 개선으로 현행대로 연간 60일 이내, 1회 실시기간 15일 이내로 유지 하되 가전제품의 경우는 산업용과 가정용을 분리, 실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종전 거래가격 유지기간은 종전 거래가격 20일 유지, 가격인하 표시규제의 합리화로는 인하율 표시는 허용하되 가격인하 표시, 광고기간은 1개월로 제한할 것과 할인을 범위표시와 최고 할인을 품목의 구성비 표시방법 개선과 단일 할인을 표시시 해당품목의 구성비 표시방법 개선은 현행대로 유지할 것을 주요지로 하는 주제발표와 토론이 있었다.

가전부품(냉장고) 표준화 공용화 회의 개최

본회 가전과에서는 지난 11월 22일 본회 회의실에서 관련업체가 모인 가운데 냉장고 부품 표준화, 공용화를 위한 표준화 회의를 개최하였다.

회의 내용은 Relay는 부품과에서 표준화 하였던 EIAK CE-3011 규격(전자식 냉장고의 대용량 파워릴레이)에 현재 추가로 사용하고 있는 규격을 삽입, 보완키로 하였으며 Thermostat는 Thermostat 생산업체로부터 받은 규격을 검토하여 표준화안을 도출키로 하였으며 Bi-Metal Thermostat는 Fuse에 대한 규격을 제외하고 Thermostat에 대한 규격만 합의 규격으로 채택키로 하였다.

의료기관 관계자 초청 국산전자의료기기 공장 견학

본회 전자의료기기 산업협의회에서는 지난 11월 5~8일(3일간) 병원의 구매담당자 및 의사 등 97명을 초청하여 국산 전자의료기기의 신뢰성 제고와 국산 전자의료기기의 시장확대의 일환으로 의료기관 관계자 초청 전자의료기기 제조공장을 견학하였다. 병원관계자 등 견학자들은 신제품 제조과정 등을 지

켜보면서 문제점 및 A/S관련 등 제조업체에 대한
요망사항을 제시하였고 제조업체들도 자기 제품홍보
및 문제점 개선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제시하면서,
현재 국산 전자의료기기의 향상을 위해 ISO9001 및
TUV 등을 이미 획득 및 추진중에 있으며 수출도 매
년 20% 이상씩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국산 전자
의료기도 이제 세계시장에서 손색없는 품목으로 자
리잡고 있어 과거의 국산 전자의료기기가 아님을 강
조하면서 많은 애용을 요청하였다.

* 세부일정으로는

- 11월 5일 경기 일산 로엘메디칼
경기 부천 한신메디칼
- 11월 7일 강원 홍천 (주)메디슨
- 11월 8일 충남 금산 (주)동아X-선기계를
방문하였다.

유통시장 개방에 대한 가전업계 대응방안 협의

본회 가전산업부에서는 가전업계 대응방안협의 및
할인특매고시 개정관련 공청회에 개진할 의견수렴을
위해 삼성전자 등 관련업체가 모인 가운데 11월 18
일 회의를 개최 하였다.

할인특매 개정고시 공청회 관련으로는 할인특매
실시기간은 현행대로 연간 60일 이내, 1회 실시기간
15일 이내로 하고 할인을 범위표시와 최고 할인을
품목의 구성비 표시는 현행대로 유지할 것과 유통시
장 개방관련 대응방안으로는 할인점의 불공정 행위
(부당염매), 특소세에 관한 대정부 건의안 작성키로
하였다.

한미 컴퓨터 산업 협력 실무 협의

본회 정보산업과에서는 지난 11월 26일 미국
AEA회의실에서 미국 AEA 실무원들과 그동안의
협력포럼 평가, 문제도출, 실질적 협력강화 방안 모
색에 대해 협의하였다.

협의 내용으로는 그동안 2차에 걸친 협력포럼은
형식적인면과 양국의 입장을 이해하는데 성공적이었
으며 실효성면과 추진상의 어려움의 문제점을 지적
하였다.

또한 새로운 협력 프로그램에 대한 협의 즉 상호
구매확대 프로그램과 '97년 협력포럼 계획 등 양국
의 정보산업의 상호교류와 발전에 대해 폭넓은 협의
가 이루어졌다.

몽고 전자산업 연구단 본회 방문

지난 11월 18일 몽고 전자산업계 사장단 10명이
본회를 방문, 한국전자산업 발전상에 큰 관심을 표
명했다.

이날 본회에서는 한국전자산업 발전상과 현황에
대해서 설명하고 한·몽고 전자산업 협력 방안을 모
색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한편, 몽고 전자산업연구단 단장인 몽고 컴퓨터
제조 무역사 Yalalt SH 사장은 현재 “몽고는 80년
대 초반 전자산업 발전을 위한 장기발전 계획아래
첨단산업을 육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몽고의 광활한 국토의 전력량이 많지 않아
칼라TV의 태양열 이용방식의 생산이 필요하다고 밝
히며 한국 전자업체의 투자 협력을 강조했다.